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6년 11월 1일(일) 제1610호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11월 2일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12월 9일 크리스마스 포 유 '엄마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다. 11월 2일(월)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12월 9일(수) 여성 맞춤전도집회 크리스마스 포 유 '엄마 사랑해'(이하 크리스마스 포 유 엄마 사랑해)가 막 오른다.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는 의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11월 2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NGO 메디엑세스와 전도사역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방송인 김원희가 사회를 보고, 가수 범키, 가스펠 보컬팀 크룩스,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가 공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11월 2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마련되는 접수데스크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전 접수는 마감했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저녁 만찬 포함).

크리스마스 포 유 '엄마 사랑해'는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선물하는 위로의 장(場)이다. 12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개그우먼 조혜련과 가수 이지훈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크리스마스 포 유 '엄마 사랑해'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포스터 속 QR코드로 하면 된다. 각 캠퍼스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3만 원(점심 포함).

문의: 02-570-7110(의사맞춤전도집회), 02-3215-3667(크리스마스 포 유)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I 시대, 제자로 사는 방법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리더십과 청년 참석

2026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온라인에서 열렸다. 'AI 시대의 제자도'(마 16:24)를 주제로 닷새 동안 특강과 본행사가 이어졌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는 10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특별 강의가 문을 열었다. 이인용 장로가 '세상 가운데 제자로의 삶'을 주제로 강의했다.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라인 특강이 이어졌다. 28일(수) 박태성 장로와 김영욱 장로 '제자도의 이해와 실천', 29일(목) 김홍주 목사 '로잔운동에서의 제자도', 30일(금) 김경훈 집사 'AI에 대한 성경적 관점 및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했다.

31일(토)에는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AI 시대, 교회의 책무와 제자도의 실천'을 주제로 본행사가 열렸다. 주제 강의, 설문 조사 결과 발표, 패널토의, 대학청년부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등을 했다. 주제 강의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AI 시대의 제자도'를 주제로 했다. 박태성 장로는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이인용 장로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이서진 목사(여호수아청년부), 유혁 집사(고려대학교 교수), 하선희 집사(한국 콜슨 펠로우즈 대표), 이중호 형제(SNS청년부 대표 MC)가 패널로 참가했다. 본 행사에는 공동체 대표 장로 등 리더십과 양재 순장학교 수강생 및 스태프, 대학청년부 청년들이 참석했다.

/ 홍하영 기자



2026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2026 엔젤트리 사연 접수

11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목회행정실 신청

'2026 엔젤트리' 사연 접수가 한창이다. 11월 14일(토)까지 국내 모든 캠퍼스에서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사연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다.

엔젤트리 사연신청서에는 선물을 받을 대상(가족, 친구, 이웃 등)을 꼼꼼하게 적어야 한다. 후원자가 선물을 구입하기 편하도록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한 선물(예, 캔 참치 한 상자, 쌀 10kg, 내복 100 사이즈 등)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신청자 이름과 소속 공동체와 연락처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선물 배송을 위해 대상자의 연락처와 도로명 주소도 필요하다.

선물은 5만 원 내외로 골라야 한다. 케이크, 꽃, 고기, 생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과 상품권은 신청할 수 없다. 명품이나 특정 브랜드는 표기할 수 없다. 의류와 신발은 정확한 사이즈를 기재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11월 1~15일 '열린순예배'

돌봄순원, 전도대상자 순예배에 초대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이 11월 1일(일)부터 15일(일)까지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2024년부터 시작한 열린순예배는 돌봄순원과 전도대상자를 순예배로 초대해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배다.

열린순예배 시간과 장소는 공동체와 순의 사정에 맞춰 정하면 된다. 열린순예배를 준비하는 순에게는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각 캠퍼스 공동체 담당 간사에게 받으면 된다. 열린순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진행 경과와 사진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3215-3239(공동체본부)
02-3215-3214(전도본부)

기독교 세계관_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4면 | 선교_ 이촌공동체 글로리다락방의 '봄, 어게인' 5면 | 어린이신문_ 약자들 편에 선 맥켄지 선교사와 그 가족들 6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사기 강해(6)
숨은 자를 찾아 세우시는 하나님

사사기 6:11~16

〈사사기〉에는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은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구원자가 '옷니엘' 이었고, '에훗' 이었습니다. '드보라' 와 '바락' 도 그랬습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끝난 이후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사 6:1).

하나님이 세우신 대적, 원수는 '미디안' 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성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대신에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약탈자로 몰려와 곡식을 가로채고, 먹어 치우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끌고 가는 약탈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수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 피난처와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숨어 지내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숨을 만큼 숨고 나서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숨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 입니다. 기드온만 숨은 게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이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사람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포도즙 짜는 큰 통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11절). 포도즙 짜는 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바위를 파낸 구덩이 같은 곳입니다. 밀을 털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기드온에게도 그곳은 밀을 추수하는 곳이전에 숨는 곳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타작을 하는 사람 기드온이 〈사사기〉 6장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숨는 이야기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은 숨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숨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곁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숨은 사람, 기드온의 입에서 나오는 질문이 〈사사기〉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3절).

우리에게도 익숙한 질문입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육체의 병, 닫혀 있는 재정의 문, 일터의 위기,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왜', 혹은 '어찌하여' 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자보다 말씀을 먼저 보내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12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숨은 자를 찾아 세워 주시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은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곧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이클이 깨졌습니다. 부르짖음 다음에 온 것은 구원자 사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 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0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없고, 벌하겠다는 경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치시려고 한 것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백성에게는 말씀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동굴과 요새에 숨어 살고 있는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아오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11절).

우리말성경에는 떡갈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상수리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구덩이 바로 곁, 그 나무 곁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숨은 구덩이에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곁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하리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숨은 사람의 곁에 앉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드온에게 처음 건네신 말씀이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가 어디를 봐서 용맹스럽습니까? 그가 용맹스럽다고 평가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14절).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서 그 일을 끝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좁은 구덩이에 숨어서 밀 타작하는 힘이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5절).

이번에는 "무엇으로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처음에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주시고, "큰 용사여, 용맹스러운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라고 질문합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느낀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소심했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기드온은 누가 봐도 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겁쟁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신을 연약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내가 무엇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뒤로 물러서서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숨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만 질문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16절).

또다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대답만 주십니다. 기드온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소심하고,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실까요? 기드온과 같은 이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나서는 이보다, 연약하고 소심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 있는 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포도즙 짜는 틀, 곧 구덩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로 한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패한 뒤로 아무것도 맡지 않기로 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돌아온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좁고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서 몇 줌의 밀을 타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숨어 있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곳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곁에 앉아 계시며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고 집에 가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삶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7년 동안 약탈당한 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위에 불을 붙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여 줍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자는 곧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 6:23).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가 들은 음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자리를 평강이라는 이름, ‘여호와 샬롬’ 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을 미디안과 싸우는 구원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하신다는 약속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집안에 있는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기 전에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을 먼저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잡아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이 행위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을 불러들인 ‘바알’ 과 ‘아세라’ 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들의 수확을 미디안에게 모두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인 바알 신상을 허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집에 숨어 있는 것도 찾아내십니다. 기드온은 그 밤에 종 열 명을 데리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침이 되자 성읍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알 제단을 헌 자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우상을 허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외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오?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그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이오.”

기드온의 아버지가 갑자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심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입니다. 아들이 우상을 허물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아버지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날 기드온이 ‘여룹바알’ 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알이 스스로 다투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통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바알이 자신의 가정을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을 숨은 자리에서 찾아내셔서 제단을 헐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계속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어찌하여”라는 반복되는 질문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드온의 질문을 그대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 쌓여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바위에서 나온 불이 기드온의 제물을 불살랐듯이, 하나님 심판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통, 그분이 받으신 버림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자, 숨어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숨은 구덩이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곁에서 약속을 주시고, 용맹스러운 용사로 불러 주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밤에 은밀히 온 니고데모를 찾아오셨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덩이에 숨어 있던 기드온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포도즙 짜는 구덩이가 있었다면, 제자들에게는 문을 걸어 잠근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의 순서가 교회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숨어 있는 이들을 찾으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해 발견된 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있는 자, 바람이 들지 않는 구덩이에서 밀을 털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지 못할 곳도 없으며, 하나님이 버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숨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들에게, 집안의 우상부터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처럼 이 시대의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대적해야 할 미디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숨게 만드는 미디안들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어찌하여”라고만 질문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생명은 언제 시작될까?

지난주 〈온누리신문〉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아의 폐기, 냉동, 선별 문제를 '기독교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난임의 아픔을 겪는 가정과 그 축복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의와 다르게 전달된 글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불편함을 겪으신 성도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너그러운 헤량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향한 부모님들의 간절한 간구와 그 모든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녀는 잉태와 출생의 방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지난주 〈온누리신문〉에 기고한 글은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을 선택하신 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글의 목적과 취지는 오직 '생명 보호'였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체외수정 과정에서 남겨지고 보관된 배아의 생명도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루었습니다. 생명 보호의 첫걸음은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생명은 언제 시작될까?'라는 주제로 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한 글이지만,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과 달라서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하기 쉽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

첫째, 생명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태어나기 하루 전 자궁 안에 있던 아기는 살아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태어난 순간 살아 있는 한 인간이 출생 하루 전에는 살아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유일한 차이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뿐이다.

둘째,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이 "아기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은 의료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에는 임신 24주에 태어난 아기도 생존할 수 있지만, 200년 전에는 불가능했다. 또한 부유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가능한 의료적 처치를 아기에게 제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생명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 여부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생명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에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생명체는 오직 다른 생명체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배아가 처음 몇 주 동안은 살아 있지 않다가 어느 순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배아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기 전부터 살아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렇다면 심장이 뛰지 않아도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바로 이 점에서 갓 수정된 배아는 기능적인 면에서 이미 태어난 사람보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 준다. 배아는 심장 박동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도 살아 있고, 성장하며, 인간 발달의 여러 단계를 거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명은 수정, 곧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시작된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하나의 온전하고 살아 있는 생명체가 생겨난다. 이 생명체는 유전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다. 물론 배아는 이미 성장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이미 넘어선 것 아닌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검은 얼룩 같은 것들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 이미 그 모습은 사진 속에 담겨 있다. 단지 사진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바로 그 순간, 부모와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인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장하고 발달할 시간뿐이었다. 그러므로 남는 답은 하나다. 생명은 수정, 곧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시작된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사실이며, 논리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 이 글은 저자의 견해입니다. 〈온누리신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소명과 직업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성태연 집사
(서초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소명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다.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명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태도이다.

많은 사람이 소명과 직업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 둘을 분명히 구별한다. 직업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소명은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소명은 삶의 중심으로 남는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소명은 삶의 목적을 부여한다. 이 둘을 혼동하면 직장이 흔들릴 때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흔들린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이해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부르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직업은 그 소명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오늘날 우리는 직업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어디에서 일하십니까?"는 곧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이 된다. 세속적 세계관은 직업을 정체성의 중심에 두고 연봉과 직함, 영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 결과 직업이 소명을 대신하고, 성취가 곧 우리의 가치가 된다.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이다. 우리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이 정체성을 잊을 때 우리는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실패는 우리를 흔든다. 그러나 소명을 아는 사람은 직업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직장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곳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을 응대하며, 동료의 실수를 처리하고, 승진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매일 결정해야 한다. 세속적 세계관은 효율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지만, 〈골로새서〉 3장은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한다. 우리의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소명을 아는 사람은 "이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택인가?"를 먼저 묻는다. 이 질문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의를 지킨다.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직장은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다.

직장은 또한 비교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료의 승진과 성과, 다른 부서의 성공이 쉽게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세속적 세계관은 경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소명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음을 일깨워 준다. 어떤 이는 눈에 띄는 자리에서, 어떤 이는 조용한 자리에서 섬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인정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우리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평범한 업무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를 보신다.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은 직업윤리를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직장은 어려움뿐 아니라 중요한 선택의 순간도 가져온다. 세속적 세계관은 더 나은 보상과 경력을 기준으로 선택하지만, 소명은 먼저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아니라,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더 신실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필자의 지인이 선택 순간의 경험을 전해준 적이 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섬기겠다는 비전을 품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 교직을 선택했다고 했다.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그의 연구와 관련된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찾는 한 대기업에서 매력적인 조건의 초청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처음 예수님이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 다시 분명해졌고,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다. 사실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 받은 소명을 기억했더라면 답이 분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경험이 직업이 소명을 이루는 도구이며, 어떤 기회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 주는 소망은 성공도 실패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님을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취보다 신실함을,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다.

세속적 세계관은 직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신실하라고 한다. 세상은 성취를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을 기뻐하신다. 세상은 비교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직업을 통해 소명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직장은 성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삶의 태도가 될 때, 직업이 생계와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 그 조용한 신실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다락방 1사역

이촌공동체 글로리다락방의 '봄, 어게인'

금요일 오전이면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동요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봉사자 조끼를 입은 이촌공동체 글로리다락방 순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 부른다. 글로리다락방의 '1다락방 1사역'은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에서 한다. 그 사역의 이름은 '봄, 어게인'이다.

글로리다락방은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거나 순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 배우자가 없는 성도로 이루어진 여성 다락방이다. 순예배를 금요일 오전에 드리는데, 먼저 봉사부터하고, 순예배를 드리고 있다. 글로리다락방 소속 6개 순에서 28명이 자원했고, 한 달에 두 번 12명씩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를 찾고 있다.


이촌공동체 글로리다락방 성도들이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어르신들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드리고 싶어서

글로리다락방의 '봄, 어게인' 사역은 한숙영 다락방장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다닌 어느 권사님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그 딸이 한숙영 다락방장에게 "어머니와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도움을 청했다. 한숙영 다락방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도해 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글로리다락방 리더십 회의에서 '1다락방 1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숙영 다락방장이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말씀으로 섬기자"는 의견을 냈고, 모두 찬성했다. 대상을 정하는 논의 끝에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를 찾아가 섬기기로 했다.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남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미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사역을 시작하려니 아이디어가 없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교재의 이름도 '봄, 어게인'이다. 어르신들이 생물학적으로는 가을이나 겨울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봄처럼 새로 태어난다는 뜻을 담았다.

교재 〈봄, 어게인〉은 성경 이야기를 네 컷 그림으로 그리고, 순원용 인도자 지침서와 어르신용 활동 익힘책을 묶어 3세트로 구성했다. 주제는 일곱 가지다. 어르신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자녀(돌아온 탕자)에서 건강, 친구, 돈, 꿈, 평화를 지나 천국(십자가의 강도)에 이르는 내용이다.

글로리다락방 순원들은 한 달에 두 번, 어르신들을 찾아가 함께 동요를 부르고, 네 컷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 선 잇기, 그림 맞추기, 빈칸 채우기를 한 다음 기도로 마무리하고, 함께 식사한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손과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발 마사지도 해드린다. 그날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단체대화방에 남기면 일과가 끝난다. 이 일을 순 방학 기간에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다. 순원들의 지극한 보살핌과 지속적인 노력 덕분인지, 만남이 거듭될수록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활짝 웃어 주신다.

물론 현실의 벽도 있다.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어르신 가운데 70~80%가 치매 환자여서 교재하며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순원들은 어르신들이 반응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글로리다락방의 꿈은 어르신들에게 다시 '봄'을 선물하는 것이다. 더 많은 다락방이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직접 만든 교재 배부를 준비 중이다.

"어르신들에게 '봄'을 되찾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리다락방의 '1다락방 1사역'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갔을 뿐이다. 1다락방 1사역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다락방이 있다면 사회선교본부(02-3215-3434)에 문의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재난 현장에서 다시 배운 '하이브리드 선교'


이정엽 목사
(LA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 미주 대표)

재난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빼앗아 간다. 삶의 터전과 일상, 내일에 대한 안전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마저 빼앗는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는 생존을 위한 구호품뿐 아니라 두려움을 달래 줄 위로와 다시 살아갈 희망이 꼭 필요하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2차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지난 8월, 비전헌금을 봉헌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 덕분에 베네수엘라 2차 긴급구호(9월 15~18일)를 할 수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와 본부 직원 2명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차 긴급구호(7월 14~16일)가 재난 직후의 긴급한 필요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라과이라 지역의 이재민 쉘터 3곳에 약 3천명분의 의약품과 700명분의 위생용품 키트를 전달했다. 라과이라주 바르가스 시에는 의약품과 짐칸형 삼륜 오토바이 4대, 이륜 오토바이 2대도 지원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카라카스와 마라카이 지역 소방관 총 142명에게는 유니폼과 부츠를 전달했다.

이번 긴급구호 중에 NGO 더멋진세상은 현지 장애인단체 바네사 페레티 재단(Fundacion Vanessa Peretti, FUNVAPE)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베네수엘라의 인도적 지원과 장애인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는 협력을 도모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라과이라주 바르가스 시의 호세 마누엘 수아레스 말도나도(Jose Manuel Suarez Maldonado) 시장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도시와 시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그에게 도시는 단순히 관리해야 할 행정구역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선교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 동참하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하이브리드 선교'가 있다. 교회와 교사, NGO와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연결하고,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회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현지의 사람들이 회복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재난의 고통은 이재민들만의 짐이 아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비전헌금과 긴급구호 후원금이 의약품과 구호물품으로 전달 됨과 동시에, 그 안에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달됐다. 재난이 상실과 두려움, 절망을 남긴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과 소망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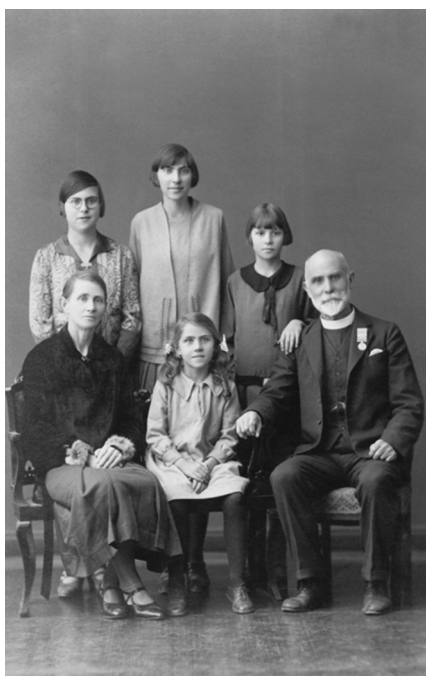
목사가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

약자들 편에 선 맥켄지 선교사와 그 가족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1910년 호주 출신 한 선교사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F. J. 맥켄지(Frederick John Mackenzie). 한국에서는 친근하게 '매견시 선교사'로 불렸다. 이 인물의 삶은 평범한 선교 활동을 넘어 당대의 사회적 편견과 싸운 용기 있는 투쟁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을 겪고, 건강까지 좋지 않았음에도 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맥켄지 선교사의 헌신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자들의 편에 선 급진적 실천이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어떤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가?"

한국 나병 환자들의 친구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센병(나병) 환자들은 가족에게조차 버려진 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다. 당시 한센병은 전염에 대한 공포와 무지 때문에 사회적 낙인(Stigma)이 가장 심했던 질병이었다. 사람들은 환자들을 피했지만, 맥켄지 선교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가 세운 상애원(相愛院)은 '서로 사랑하는 집'이라는 뜻 그대로, 환자들에게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준 공동체였다. 40명으로 시작해 600명 이상의 환자를 품은 상애원에서 맥켄지 선교사는 당시 가장 좋은 치료약인 '대풍자유(大楓子油)'를 구해 환자들을 직접 치료했다. 그의 헌신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사랑과 과학적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세상이 '버린 자'들을 '친구'로 끌어안음으로써 맥켄지 선교사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희망의 빛을 밝힌 진정한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한국 나병 환자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 칭호가 그의 묘비에 새겨지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맥켄지 선교사의 사랑은 한국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부산과 경상도 지역 외에도, 배를 타고 이틀 밤낮을 가야 하는 울릉도까지 사랑을 전파하며 그 섬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놀랍게도 이 교회 건축 기금 중 일부는 그가 이전에 선교했던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었다. 이는 사랑과 희망이 국경을 넘어 순환하며 초국가적인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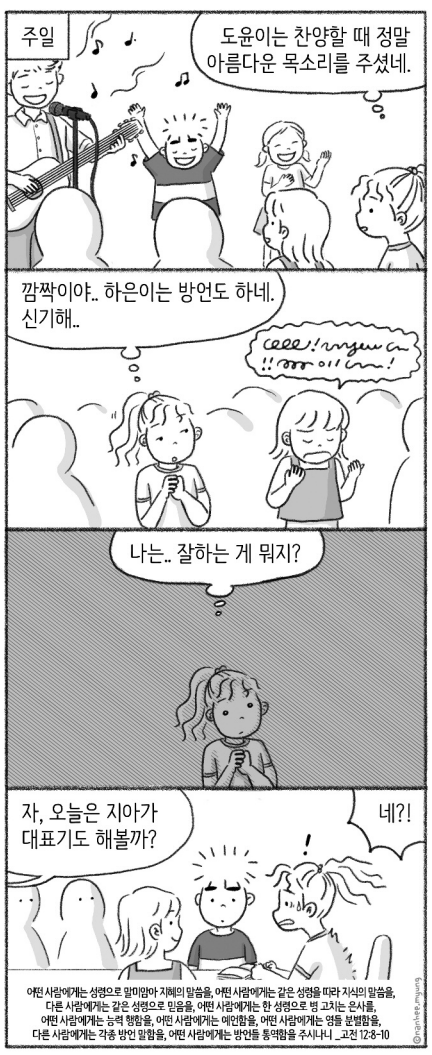
더 나아가 맥켄지 선교사는 은퇴 이후 고향인 호주로 돌아가서도 뜻깊은 일을 했다. 당시 호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백호주의(白濠主義), 즉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 용감하게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그의 헌신이 단순한 지역적 사역이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정의와 윤리적 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한다. 진정한 선교사는 자기 나라의 잘못된 편견에도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맥켄지 선교사의 헌신은 그의 두 딸, 헬렌(산부인과 의사)과 캐서린(간호사)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졌다. 두 딸은 한국의 아픈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전문 의료인이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부산에서 길거리 출산을 목격한 두 자매는 '안전한 출산 환경'이 절실함을 깨닫고 작은 공간에서 일신부인병원(현 일신기독병원)을 개원했다.

두 자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한국의 가난하고 병든 여성과 아기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 상애원이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복지의 시작이었다면, 일신기독병원은 한국 근대 여성과 아동 보건 및 의료 시스템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기관으로 발전했다. 맥켄지 선교사와 그의 가족 이야기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세대를 거쳐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맥켄지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우리에게 묻는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어떤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가?"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0월 28일, 30일 본문 '아 5:12~16, 7:9~13'

1.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노래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각 신체 기관이 어떠하다고 노래하나요?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 보세요(아 5:12~16).
① 눈-시냇가의 비둘기
② 볼-향기로 가득한 꽃밭
③ 코-향기로운 백향목 가지
④ 입술-몰약이 떨어지는 백합화

2.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고백일까요?(아 7:10)
① 나는 먼 길을 떠날 것입니다
② 곁에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③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④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3.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문 앞에 무언가를 쌓아 두었다고 노래해요. 문 앞에 쌓아 둔 것은 무엇일까요?(아 7:13)
① 빵과 물고기 ② 금과 은 ③ 양털과 비단 ④ 온갖 탐스러운 열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대전 차세대 〈천로역정〉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천국을 향한 믿음의 모험

〈천로역정〉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 소식을 듣고,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터라 호기심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사전을 찾아보니 '천로(天路)'는 천국으로 가는 길, '역정(歷程)'은 거쳐 온 길이라는 뜻이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떠나는 믿음의 모험 이야기였다.

무거운 죄의 짐을 멘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나 천성(천국)을 향하는 좁은 길의 여정을 시작한다. 샛길로 빠지거나 아첨꾼의 말에 속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지만, 지혜를 얻고 쉼터에서 쉬어가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한다.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은 크리스천이 해설자에게 지혜를 얻을 때 나온 '벽난로의 비밀'이었다. 악한 자가 아무리 끄려 해도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지지 않은 까닭은 예수님이 계속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는 계실까?"라고 가끔 의심했었는데, 예수님이 알게 모르게 내 곁에서 항상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럽고 감격스러웠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신실'이었다. 헛됨의 시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용기 있게 행동하다 죽임을 당해 천국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날아간 사람이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떠올랐다. 일상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일조차 어려웠던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신실이 존경스러웠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신실을 차근차근 닮아 가고 싶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거인과 악마를 만나고 친구를 잃기도 했지만, '믿음'만은 지켰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도 필사적으로 지켜 낸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꼭 필요한 열쇠가 아니었을까? 아직 신앙심이 부족한 나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면 크리스천처럼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지켜 낼 수 있을까? 이 책으로 첫 발자국을 찍은 나의 천로역정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문에 발을 디디며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다다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박하엘 학생
(대전 소년부, 초6)

의심과 질문 사이에서 '기독교 변증'

"신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세속적 인본주의 철학자 폴 컬츠(Paul Kurtz) 미국 뉴욕대학교 석좌교수는 '신이 없어도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해서 정직, 협동, 배려, 약속 지키기 같은 도덕적 덕목을 상호 간에 공유하고 있다. 도덕의 기초는 신의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이성과 공감에 있다. '신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먼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도덕성의 근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이성과 사회적 공감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신과 종교 없이도 도덕적 삶과 상호 간의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위해 만든 공적 제도이기에 국가의 정책과 법률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도덕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한다. 도덕적인 사회를 유지할 책무를 지닌 국가의 모든 실정법과 정책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었고, 때에 따라 국가가 불의한 법과 정책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가령, 조선왕조의 노예제와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겨우 폐지되었으며, 중국 청나라도 1910년에서야 노비 조례를 삭제했을 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명권 국가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법률과 관행으로 노예제도를 주도해 왔다. 그러므로 각 개인도, 국가도 도덕성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둘째, 뇌신경과학자 샘 해리스(Sam Harris)는 과학적 탐구가 도덕적 판단을 이끈다고 답한다. 해리스는 저서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The Moral Landscape)에서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도덕 판단의 실증적 기준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해리스의 과학적 환원주의는 도덕이 지닌 영적인 차원과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배제한다. 과학적 탐구가 도덕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판단이 과학적 탐구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은 사람이 독극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독극물을 사용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다.

셋째,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보존하고 더 나은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송하기 위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는 자신의 복사본을 보존하기 위해 후손을 돕는 이타적 행동도 유발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완전히 난센스이다. 유전자는 정보 체계일 뿐, 그 자체에는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성향이 없다. 따라서 유전자 자체는 도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진화론은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도덕성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넷째, 일부 사회계약론자들은 계약 사상이 도덕적 당위성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계약서가 도덕성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그 계약서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간주하는 것은 계약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상위의 도덕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자체는 도덕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섯째, 1970년대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제안한 '가이아 이론'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자율적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범신론자들은 가이아 가설을 확장해서 '지구 자체가 하나의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며 자연을 피조세계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높였다. 가이아 가설에 따르면, 인간 생명이 다른 자연계의 동식물, 심지어 아메바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범신론적 가이아 이론이 인간의 존엄성과 객관적 도덕성을 약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이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다'는 컬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도덕적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할 때 가장 잘 설명된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도덕이 나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한다."

결론적으로 '신이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다'는 컬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술한 대로 각 개인과 국가, 과학적 탐구, 유전자, 진화론, 사회계약론, 가이아 이론도 절대적인 도덕성을 만드는 근원이 될 수 없다.

물론 컬츠의 주장은 일부 비교적 착하게 사는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컬츠의 주장과는 반대로 기독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도덕규범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도덕적 가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할 때 가장 잘 설명된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도덕이 나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

* 이 글은 책 〈기독교 변증 카운슬러〉(김기호, 김한나 저)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전도, 이렇게 하세요

부모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부모님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 부모님께는 교회가 함께 어울릴 사람도, 마음 붙일 자리도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이 없고, 신앙을 배우기만 하는 곳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어려움은 '관심사 기반의 접점 확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소풍 가는 곳이어야 한다. 노년의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고립감에서의 해방과 새로운 활력이다. 교회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나들이를 떠나는 '즐거운 공동체'로 인식될 때 부모님의 마음 문이 가장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행 2:46~47).

무엇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게 좋다. 교회에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는 일을 자주 만들어 드려야 한다. 부모님을 교회라는 교실로 초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의 시니어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한다. 부모님께 교회가 낯선 젊은이들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동년배들이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자녀의 백 마디 설명보다 비슷한 인생의 파도를 넘어온 시니어들의 간증과 교제가 강력한 동질감을 형성해 준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히 10:24~25).

공감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 비슷한 고민을 나눌 또래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게 핵심이다. 부모님은 자녀의 논리에 설득되기보다, 자신과 닮은 누군가의 진솔한 삶의 고백에 마음이 움직인다.

셋째, 부모님의 재능이 교회에서 쓰이도록 인도한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 온 기술이나 재능(요리, 상담, 수선, 원예 등)이 교회 공동체에서 작게라도 쓰임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배우러 오세요"라는 말보다,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이 부모님의 마음 문을 더 활짝 열게 한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십시오"(벧전 4:10).

재능 발굴과 요청이 우선이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어머니 손맛(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해요"라며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다음 작은 성취의 기쁨을 드리면 된다. 공동체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 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을 손님을 넘어 주인으로 쓰임을 받게 해 드릴 때 교회가 비로소 부모님의 안식처가 된다.

넷째, 환대받는 경험이 교회 문턱을 낮춘다. 부모님께 교회는 낯선 법도와 절차가 가득한 곳일 수 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진심 어린 환대는 그 모든 긴장감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주차 공간부터 좌석 배치까지 부모님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이다.

*** 부모 전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책 〈부모 전도 101(2026), 두란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멘토가 멘티에게 '슬기로운 이직 생활'

이직의 큰 함정, 경력 단절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이었는데, 충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아웃리치와 여행, 휴식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이직 과정의 큰 함정 하나가 '경력 단절'이다. 필자는 믿음이 없던 시절 20여 차례 이직 과정에서 여러번 실직과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실직 자체보다는 실직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이었다. 그래서 멘티들의 이직 상담에 응할 때 "불가피하면 이직은 하되, 실직은 피하라"고 조언하곤 한다. 일시적 실직이 뜻하지 않게 장기화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경력 단절 같은 광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과 모세다. 이삭은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투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고, 르호봇에 이르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고백했다(창 26:22).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지낸 뒤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 또 다른 40년을 보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와 단절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낮추시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처럼 경력 단절의 시기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력 단절은 고통과 낙심으로만 느껴진다. 실직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 한 장(章)의 마감이자 새로운 장을 기다리는 과정일 수 있다. 1년 이상 직업이 없는 상태를 경력 단절로 본다면, 필자는 네 가지를 권면하고 싶다.

첫째, 성실하게 구직해야 한다. 실직의 상처로 구직 활동이 위축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게으름보다 성실함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실함 속에서도 자라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도와 돌파'를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의 떠남도,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도 순종의 도전이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경제적 압박이 덜하다면 적성과 은사를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달란트를 뒤늦게 발견하는 일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전직은 낮아짐을 요구하지만, 실패가 아니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다시 높이신다.

셋째, 영혼과 육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몸이 약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체력이 부족하면 훈련하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광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넷째, 창업도 고려할 수 있다. 경험한 분야를 살려 도전하는 청년들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낀다. 창업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책임감으로 도전하는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성경 속 다윗은 단절을 거쳐 왕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은 다윗의 역할이 아니라 순종을 보셨다. 청지기 정신으로 일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절의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을 성장시키신다.

따라서 단절을 대비할 지혜와 극복할 믿음의 저력을 미리 길러야 한다. 먼저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는 일터 어디서든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실력만으로 오래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다. 신뢰와 성실, 관계의 자산은 위기에 큰 힘이 된다. 극복하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필자는 45세에서 49세 사이 M&A와 벤처 투자 전문가로 일하다 타국으로 이주해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해야 했다.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그 낮은 자리의 경험이 지금 경영과 사업의 기초 체력이자 영성의 뿌리가 되었다. 하나님은 때로 낮아짐을 통해 사람을 깊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경력 단절의 시기에는 수동성과 안일함, 도피를 끊어야 한다. 신앙을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현실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힘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도와 돌파'를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의 떠남도,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도 순종의 도전이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다(계속).



박기일 장로
(길공동체 멘토, OCC공동체)

미술의 원래 모습 찾기

우유 따르는 여인(1)



미술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인본주의 세계관을 좇아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앙적 주제를 배제한 현대주의 미술로 흘러갔다.

현대미술이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열고 창조의 영역을 넓힌 면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추함과 악함마저 중요한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술의 많은 부분은 더욱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며 미술이 복음 사역의 중요한 수단이자 참된 예술임을 성도들과 나누고자 연재를 시작한다. 이 글이 모든 인간 영역을 아우르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총체적인 믿음의 활동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전문화된 미술·예술·문화선교가 서로 연대해 믿음의 군대를 이루고,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첫 번째 작품으로 '우유 따르는 여인'을 살펴본다.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미술은 사실주의, 추상주의, 표현주의, 환상주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작품은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사실주의가 거부하려는 '서술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서술적인 내용을 깊은 신앙적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가 1658~1661년경에 그렸다.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평범한 일상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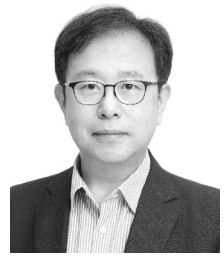
페르메이르는 당시 부엌을 놀라울 만큼 사실적으로 그렸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여인과 빵, 우유를 비추며 화면에 생동감을 더했다. 페르메이르는 넓은 흰 벽의 작은 못 자국과 깨진 유리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여인의 노란 상의와 푸른 앞치마는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루는데, 특히 푸른색은 당시 매우 귀한 안료인 '울트라마린'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사실적인 묘사에만 있지 않다. 가까이에서 보면 형태를 모두 그려 넣기보다 점과 비교적 자유로운 붓질로 생략과 암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빛의 순간을 포착하려는 인상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절제되면서도 생동감 있는 붓질에서 고흐의 붓 터치를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페르메이르는 치밀한 사실성과 뛰어난 회화적 표현을 하나의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낸 화가였다.

다시 푸른색을 살펴본다. 여인의 앞치마에 사용된 푸른색은 천연 청금석으로 만든 울트라마린이다. 당시 울트라마린은 워낙 비싸서 금을 칠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다. 페르메이르는 그 비싼 안료를 평범한 하녀의 앞치마에 아낌없이 썼다. 색이 품은 뜻은 푸른색에서 그치지 않는다. 황금빛 상의는 왕의 존귀함과 영광을, 붉은 치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게 한다. 다시 말해, 평범한 하녀의 모습에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영광을 암시하는 상징이 담겨 있다.

우유 역시 단순한 풍속화의 소재만은 아니다. 성경에서 우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 곁에 놓인 빵은 생명의 양식을 더욱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이처럼 벽의 못 자국,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깨진 유리, 그리고 빵과 우유는 모두 평범한 일상을 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주의는 전통적인 은유와 상징을 배제하고, 다양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페르메이르는 사실적인 묘사 속에서도 깊은 상징성과 신앙적 의미를 함께 담아냈다. 페르메이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렸지만, 그 현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려 한 화가였다(계속).



강태성 대표
(AD gallery 대표, 일대일통합사역팀 총무, 성북공동체)

맛있는 말씀 해설(시 121:1~2)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시 121:1~2).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순례자가 그 긴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노래다.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 순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을 건다.

"힘들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봅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이 있다. 더 강한 것, 더 확실해 보이는 것, 더 실력 있어 보이는 것. 그 방향으로 눈이 움직인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시편〉 121편의 순례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든다. 시인은 '눈을 든다'고 한다(1절). 왜 눈을 들어야 했을까? 그의 눈은 그 전에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 땅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발밑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당장의 상황, 두려움, 어려움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순례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면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이다. 산적이 도사리고 있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쬔다. 발은 부르터 있고, 물과 식량은 부족하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어린아이와 노인을 데리고 걸어가는 길이다.

바로 그 순간, 시인은 눈을 '든다'. 발밑에서 산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든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단순한 지형지물이 아니었다.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시온산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 영혼을 지키겠다.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2절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는 단순한 신앙 표현이 아니다. 당시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바벨론의 신들이 세상을 접수한 것 같은 상황이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순례자는 이렇게 선포한다.

"아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진술이 아니다. 온 세상의 질서를 선언하는 것이다.

냉장고가 고장 나면 누구에게 전화하는가? 세탁기가 멈추면 누구를 찾는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찾는 것이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부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어디가 취약한지는 설계자가 가장 잘 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인가?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세상은 명확하다. 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중심에 놓인 자와 주변에 놓인 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돌아간다. 더 많은 스펙, 더 넓은 인맥, 더 높은 자리, 더 큰 통장 잔고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순례'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도움"이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순례의 길은 여전히 힘들다. 발이 붓고, 햇볕이 뜨거우며, 어둠이 두렵다. 그리고 낙심이 온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그 길 위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 영혼을 지키겠다. 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전병천 목사
(강동온누리교회)

CGN 콘텐츠와 함께 – 'RE바이블': 대표적인 의심의 아이콘!

나다나엘과 도마



한기채 목사
(중앙성결교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감격을 나다나엘에게 전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믿지 않았다.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가나에서 나사렛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나사렛은 몇 가구 살지 않는 동네였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동네 사람들을 대략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나사렛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나다나엘도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어느 도시에서, 어느 부잣집에서, 공부 많이 한 어떤 사람'일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봤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일부분을 전체로 생각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낮게 보는 편견이 있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그냥 "와보라"고 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며 성품까지 꿰뚫어 보셨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물어본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통하는 말이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같은 광야 사막 기후에서 잎이 넓어 그늘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 문제가 있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내가 다 보았고, 안다"는 뜻이다. 나다나엘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미리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분, 빌립을 보내 나를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고백한다. 편견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자신을 보고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평생 충성을 다한 나다나엘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 안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한다. 기도제목이 있거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곳 말이다.

도마는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다. 같은 사건을 봐도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바라봤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자, 도마가 정직하게 의심하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라고 질문한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자 불안하고 걱정부터 들어서 한 질문이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찾아와 십자가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 확인해 봤느냐"며 핀잔을 줬다.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다. 그 이후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성경은 믿음에 이르기 위한 의심을 정죄하지 않는다. 도마는 회의론자나 이성주의자가 아니다. 믿고 싶어서 정직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이것을 '정직한 의심'이라고 부른다.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아뢸 때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 확신을 주신다.

*** 더 자세한 내용은 CGN 유튜브, 퐁당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친구의 믿음을 위하여

저는 모태신앙이고,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기독교인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제 친구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소중한 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친구의 마음 문이 열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방황이나 외로움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제 친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주일을 기다리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가장 귀한 친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1다락방 1사역팀 '현장 순예배' 도입

다락방 찾아가는 '경청의 식탁'도 운영



관악금천공동체 '경청의 식탁'.

사회선교본부 '1다락방 1사역팀'이 다락방과 연계된 사역지를 월 1회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 순예배'를 도입했다. 사역팀 리더십이 다락방을 직접 방문해 사역 진행을 돕는 '경청의 식탁'(Coaching&Dining)도 운영한다.

현장 순예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다락방이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해 사역지를 연결받는다. 그 다음 다락방장이 현장 담당자와 일정, 참여 인원, 유의사항을 사전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다락방장 또는 공동체 담당자가 활동 내용과 사진, 현장 필요 사항, 참여 소감 등을 정리해서 사회선교본부에 제출한다.

경청의 식탁은 '1다락방 1사역팀' 리더십이 각 다락방을 찾아가 식사를 나누면서 듣고, 사역지 연결과 사역 방향, 방법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선교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거룩한 성회 전국 학부모 연합 집회

11월 7일 오후 1시 30분 연세대학교 대강당

2026 거룩한 성회 전국 학부모 연합 집회(이하 전국 학부모 연합 집회)가 11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영적 브릿지를 수축하라'(사 58:12)다. 이지웅 목사(더바이블 미니스트리)가 강의한다.

2026 전국 학부모 연합 집회에는 청년과 다음세대의 정체성 회복, 교육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학부모와 중보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올해 집회에는 교사, 교수, 청년, 다음세대를 초청한다. 기독 학부모, 기독 교사(교수), 기독 학생이 함께 기도하는 '삼겹줄 전략'을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전국 학부모 연합 집회는 지난 2023년 연세기독학부모회(연기모) 창립 20주년을 맞아 '학부모 연합' 비전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집회 참석 이후 각 학교에서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거나 기존 기도회와 연결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010-8789-6471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난민촌에 '질소비료 제조장치' 설치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팔로리냐 남수단 난민촌에 '플라즈마 대기질소수 제조장치(GF-N30)'(이하 질소비료 제조장치)를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마쳤다.

질소비료 제조장치는 공기, 물, 태양광 전력만으로 비료를 만드는 친환경 장치다. 식량 배급이 줄어든 난민촌에서 농가가 직접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3일(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정부 관계자, 농업 담당자, 난민촌 농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NGO 더멋진세상은 장비 운용 방법과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11월부터 12월까지 양배추, 당근, 엽채류에 질소비료를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적정 희석 비율을 정한 다음, 현지 농민에게 비료 사용법 교육과 비료 보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든 비료는 내년 1월부터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에서 운영하는 '인도적지원사업'과 '난민농업자립사업'에 공급한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두란노 시어머니·장모학교 본부 5기 모집

두란노 시어머니·장모학교 본부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3일(화)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시어머니와 장모,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장모가 대상이다.

두란노 시어머니·장모학교 본부5기에서는 '아름다운 동행_언약'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0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287기 개강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287기가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강의 영상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홈페이지(biblecollege.duranno.com)에 공개한다. 결혼을 생각하는 연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7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1월 13일(금)까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287기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신혼, 재정의 첫걸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078-3271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

NGO 메디엑세스 의료봉사 사진전



NGO 메디엑세스가 의료봉사 사진전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를 11월 1일(일)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원형카페에서 개최한다. '진료와 수술', '봉사의 손길', '다음은 당신'을 주제로 의료봉사 현장 사진을 전시했다.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마주한 의료진, 약을 건네고 길을 안내하며 아이들을 돌본 봉사자들의 모습 등을 관람할 수 있다.

NGO 메디엑세스는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이 더 많은 의료인과 소외된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고 섬기기 위해 설립한 국제 의료(Global Medical) NGO다. 1985년부터 40여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38개국에서 11,173명의 의료인과 함께 206,093명(해외 환자 174,847명, 국내 환자 31,246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해외 진료활동 220회, 국내 진료활동 1,289회를 실시했다.

/ 홍하영 기자

스포츠로 사람 만나고, 관계 맺고, 복음 전하고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 32명 참석

스포츠전도팀에서 개최한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에 체육계 종사자와 스포츠 지도자, 청소년 사역자, 교사, 학부모, 공동체 리더십 등 32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26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건수 대표(국제크리스천코치협회 협회장) 강의, 소그룹 나눔, 3분기 스포츠선교 활동 보고, 4분기 사역 계획 발표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스포츠 현장과 공동체, 가정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지혜를 배웠다"면서 "스포츠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이번 강의가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Love Dive' 참가자 모집

11월 14일 오후 1시 대학로 이룸 2층

크리스천 M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 프로그램 'Love Dive'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4일(토) 오후 1시 대학로 이룸 2층 안디옥홀(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열린다. 신청은 11월 8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20대 크리스천 대학생과 청년이 대상이다. 개그맨 오지헌과 이서진 목사(여호수아청년부)가 강의한다.

Love Dive는 하나님 안에서 연애와 결혼,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4880-4339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Love & Marriage 4기 Public 참가자 모집

11월 21일~12월 5일 매주 토 오후 2시

(사)행가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는 Love & Marriage 4기 Public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8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하면 된다. 미혼 남녀 각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2만 원.

Love & Marriage는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건강한 만남과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남녀가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형제) 010-4928-0707 (자매) 010-3340-7039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2026 차세대 성탄절 독후감 대회

초등 6학년 이하 어린이 대상, 11월 29일까지 접수

2026 차세대 성탄절 독후감 대회 원고 접수를 11월 29일(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라는땅(꿈땅) 소속 어린이다. 독후감 대회 참가자들은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스왈드 챔버스가 들려주는 어린이 산상 수훈〉 중에서 한 권을 골라 독후감을 쓰면 된다.

독후감은 200자 원고지에 직접 써야 한다. 분량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원고는 온누리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 내면 되고,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월 28일(토)까지 도착해야 한다.

차세대 성탄절 독후감 대회는 온누리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다.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기독교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훈련을 통해 다음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는 취지다. 대회 우수작은 〈온누리신문〉에 싣고, 소정의 상품을 준다.

문의: 02-3215-311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일대일 DAY

11월 1일 8시 20분 서빙고

일대일사역본부가 개최하는 2026년 일대일 DAY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은혜의 축제'를 주제로 11월 1일(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대일 DAY에서는 우수 양육자 시상식과 일대일 암송 대회, 포토 존, 다트 게임, 일대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

11월 7일 오후 2시 정곡빌딩

(사)행가래운동본부에서 11월 7일(토)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여의대방로 67길 21)에서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자녀에게 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 청년, 성인 등이 대상이다. 문의: 010-6661-7212

맞춤형 일터 세미나 개최

참가신청 11월 1일까지

일하세 플러스에서 '일터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이하 맞춤형 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맞춤형 일터 세미나에서는 이직을 고민하고, 은퇴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한다. 이인용 장로, 박기일 장로, 방선기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4949-0254

온누리 예배학교 참가자 모집

11월 7일~12월 5일 서빙고 사랑홀

온누리 예배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 예배학교에서는 예배의 의미, 방법 등을 배운다. 참가신청은 11월 7일(토)까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접수도 가능. 문의: 010-2582-9851

내적치유학교 72기 개강

11월 19일까지 참가신청

내적치유학교 72기가 개강한다.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의도침례교회 드림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19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교재비, 간식비 등 포함). 목회자는 50%, 부부와 가족은 20% 회비를 할인해 준다.

내적치유학교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품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김성욱 목사, 허철 선교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2310-4103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4라운드 1:1 미션 … '우리가 사랑한 CCM'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7편(4라운드)이 11월 1일(일) 공개된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사랑한 CCM'을 주제로 1:1 미션을 한다. 미션곡은 CGN 시청자가 뽑은 최애 찬양곡과 2021년 발표된 'CCM 100대 명반' 수록곡 중에서 선정했다. 4라운드 진출자 중에서 3팀이 무대에 올라 '성령이 오셨네', '불을 내려주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CCM 곡을 선보인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원곡에 충실한 무대를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각 보이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편곡해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낸다. 익숙한 찬양이 어떻게 재탄생할지가 관전포인트다.

힐링멘토(심사위원) 소향은 "경연보다는 훌륭한 예배자들을 양산하는 게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무대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힐링보이스' 1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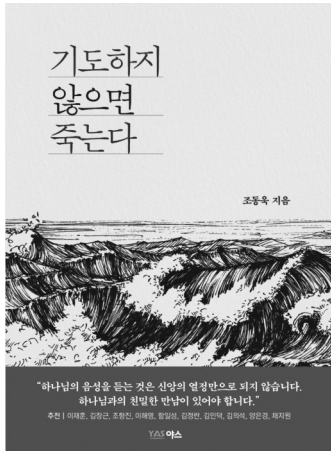
CGN 집계에 따르면, 10월 27일 기준 본편 1~6편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 273만 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릴스의 누적 조회수 909만 회를 기록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기독 OTT '퐁당',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경연에서 선보인 찬양 음원은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공개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새로나온 책

기도의 출발점은 친밀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조동욱 저 | 20,000원 | 야스미디어

"올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저자의 귓가에 짧고 단호하게 울린 음성이다. 겁이 덜컥 난 저자는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묻고 또 물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조동욱 목사(대전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의 신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물음에서 시작된 책이다.

저자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20년 동안 사역하며 청년 사역과 중국 선교, 실버타운 유당마을 목회 등을 두루 경험했다. 오랜 시간 여러 현장에서 사역하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영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다. 기도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방향과 목적, 태도를 알리려고 이 책을 썼다.

책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말하는 기도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친밀감'이다. 저자는 모여서 소리치고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흡족해하는 기도,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아니라고 짚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눈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라고 말한다. 말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기도를 살린다는 저자의 말은 기도하는 이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2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3부 '기도하는 사람들', 4부 '사단의 전략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 5부 '기도해야 산다'를 주제로 기도의 의미와 자세, 방법을 자세하게 다룬다. 기도문과 참고 구절, 기도 실습용 워크시트까지 담아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기도하도록 이끈다.

기도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 기도가 막막한 초신자, 순예배 등 소그룹에서 기도를 나누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홍하영 기자

▌온라인커뮤니티 '비전트립' 후기



아픔과 순교의 땅에서

/ 이재순 집사(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커뮤니티와 맞춤전도팀이 일본 나가사키로 연합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나에게 일본은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행하기 좋은 이웃 나라일 뿐이었다. 그 땅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나 구원의 열정이 크지 않았다.

비전트립을 떠나기 전 팀원들과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순교지를 학습하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곳이 400년 전 아픔과 순교를 간직한 땅임을 알게 되었다. 기도의 시간이 쌓일수록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나 참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3박 4일 동안 '26성인 순교지', '운젠지역 순교지', '지옥 온천' 등 잔혹한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들의 흔적을 마주했다. 발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후미에를 밟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극한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의 강인한 신앙 앞에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봤다.

순교 기념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느껴졌다.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역사의 아픔이 아닌, 그 땅을 향해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끄셨다. 뜨거운 유황온천의 모진 고문 앞에서 순교를 선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동안 무관심했던 일본을 위한 기도가 내 마음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불길이 일본의 북쪽 땅끝까지 뜨겁게 일어나 찬양의 행렬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일본의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현지 교회 집사님을 통해 척박한 일본교회의 현실을 이해했다. 우상숭배와 다원주의 같은 그들의 세계관 앞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강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날 다자이후 텐만구에서 소원을 빌며 참배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은 일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일본뿐 아니라 열방과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부모)



하나님만 믿고!

/ 이주현 성도(김예담 부모, OCC공동체)

올해 초, 한 자매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가 대뜸 "나도 일대일제자양육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힌트였던 것 같다. 자매와의 일대일제자양육이 마무리될 즈음, 교회에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원 공부와 학교 출강, 교육봉사, 육아까지 감당하며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한 단어로 답할 수 없을 만큼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애써 못 본 척 부스 앞을 지나가는데, 첫째가 나를 그 앞으로 끌고 갔다. 올해 초 나에게 말했던 그 의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기도할 때마다 미소만 지으시던 하나님이 그날은 바로 응답하셨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 네 자녀가 내 이야기를 너와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첫째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시작되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주일학교와 어와나(AWANA), 학교 성경 시간을 통해 일대일제자양육 내용을 익숙하게 접해온 아이라 큰 어려움 없이 따라왔다. 어와나에서 암송했던 구절이 나오면 이해도 빨랐다. 때로는 나조차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나름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내가 아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가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24시간도 빠듯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던 내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시간을 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마지막 주 차에는 아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아이의 발을 담가 어루만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마음이 느껴졌다. 그 마음이 첫째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부족한 엄마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겠다며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준 첫째에게 고맙다. 내 계획으로는 시작조차 못 했을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잠 16:9). 예담이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며 오늘도 기도한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간증



천국의 삶을 맛보는 여행

/ 김한철 집사(중종로공동체)

가을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었다. 어디든 좋다는 대답에 나는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에서 만났던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늘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자카르타의 D 부부, 폰티아낙의 W 부부와 한국에서 낳은 그들의 아들 K, 고국에서 결혼했다는 G 자매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 부부가 방문할 거라고 그들에게 알렸더니 뛸 듯이 기뻐했다. 다른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A 자매는 우리의 방문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 전통 케이크를 수라바야에서 자카르타까지 보내주기도 했다. 자카르타의 D 부부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어렵게 휴가를 냈다. 폰티아낙의 W 부부는 우리가 머무는 동안 재택근무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떨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 들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B 자매가 있다. 결혼식에 부모님이 올 수 없어서 우리 부부가 부모님 자리에 대신 앉았었다. 그 자매가 어느새 둘째 아들을 낳아 키우며 살고 있었다.

W 형제의 어머니는 대대로 신이 내리는 집안 사람이었다. 그 어머니가 W 형제와 현지 목사님의 기도 끝에 잡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D 형제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걱정했었다. 그가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에게 취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운동화 제조회사에 취업했다. 이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무슬림의 나라에서도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이 감사했다.

열흘 동안의 일정은 내가 가 본 여행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 환대와 감사, 성도의 교제, 찬양으로 이어진 여행은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 간증



점이 될 때까지

/ 최은정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일본 이와테현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에 다녀왔다. 일본에 도착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출발 준비를 마쳤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 손을 흔들어 주셨다. 가이드님이 일본의 소도시에는 대도시에는 없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고 했다. 손님이 떠날 때 그 모습이 점이 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

그날 저녁 식당을 나설 때도 역시 직원들이 나와 손을 흔들어 주셨다.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 단체 손님으로 매출을 확 올려준 우리에게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보이신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다음 식당에서도 직원들은 어김없이 손을 흔들어 주셨다. 세 번째가 되자, 그동안 별 관심이 없던 그 모습에 궁금증이 생겼다. 정말 손님의 모습이 점이 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지 알고 싶었다. 적당히 손을 흔들다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출발 후 1분이 지난 뒤에 돌아봤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셨다. 또 1분이 지나고 돌아보자,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뒤를 돌아봤다. '이제는 너무 멀어져서 안 계시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멀리서 점처럼 작아진 모습으로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셨다. 황송하고, 따뜻하고, 겸손해지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가족한테도 이런 배웅을 해 본 적도, 받아 본 적도 없었다.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함께 버스를 탔던 40여 명이 그동안 함께 해준 운전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두 손을 흔들었다. 조금 굳어 있던 기사님의 표정이 환하게 풀렸다. 손을 흔드는 모습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손님맞이 문화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다. 일본의 환대 문화라고 한다. 점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준다. 여기에는 손님이 떠나는 순간까지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전해져 해 질 무렵 타카마츠 연못의 가을 잎처럼 바스락거렸다.

장로칼럼

길 위에 선 순례자들



김지현 장로
(이촌공동체, 장로아카데미 실행위원)

늦더위가 남아 있던 지난 9월, 제12차 장로아카데미 수강 장로님 부부와 실행위원 등 57명이 서울 정동에 모였다.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뿌리내린 자리를 찾아가는 순례를 위해서였다. 강의실에서 배운 역사를 직접 걸어 보는 날이었다. 해설과 안내는 '(사)한국순례길 서울지부'에서 자원봉사로 귀하게 섬겨주셨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마당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김명현 대표장로님의 기도로 순례를 시작한 우리는 세 개의 조로 나뉘어 기독교역사문화해설사를 따라 '지붕 없는 박물관'인 정동에 들어섰다.

구한말 정동은 열강의 공사관이 줄지어 들어서고, 나라의 명운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하루하루 기울어 가던 곳이었다. 덕수궁 돌담을 따라 걷다가 러시아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야 했던 '고종의 길' 앞에 서자,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힘조차 없던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같은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대한제국이 속절없이 스러져 가던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우던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다.

해설을 들으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의 '삼각전도(Triangle Method)'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새삼 느꼈다. 학교에서 배움을, 병원에서 치료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하나의 일, '사랑'이었다. 배울 기회조차 없던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 준 이화학당의 사주문, 그 배움 속에서 자라난 유관순 열사의 믿음, 여성 환자를 위해 세운 첫 여성 전문 병원 보구여관(保救女館) 터 앞에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왔는지를 보았다.

그중에서도 제중원 원장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황실 주치의였던 그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백정 박성춘의 집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치료해 살려냈다. 복음 안에서 새 삶을 얻은 박성춘은 훗날 만민공동회 단상에 올라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에비슨이 깊은 감격을 담아 선교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불평등한 신분의 굴레 아래 숨죽여 살던 이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낯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존귀한 자녀라는 복된 소식이었다. 억눌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권능이었다.

오래된 골목의 고요함을 걷는 내내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열린 이 복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뒤에 올 이들을 위해 어떤 길을 내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젊음과 가족, 자기 목숨까지 낯선 조선 땅에 아낌없이 내준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그 열매를 누려왔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 주었듯,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길이 되어야 할 때다.

정동에서 하루는 끝났지만, 순례자 57명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한 영혼을 건지고, 상처 입은 이웃의 손을 잡아 주며, 다음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는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권사칼럼

러브소나타의 꿈



이영자 권사
(영종온누리교회)

나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1945년,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내가 여섯 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나 대구로 피난을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날 이후 45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다. 미국에서 CGN으로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10여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고, 영종온누리교회에 다닌 지는 3년 반 정도 됐다.

러브소나타 역시 CGN으로 처음 알게 됐다. 연세 지긋한 성도들이 일본 땅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꼭 러브소나타에 참가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지난해에는 이삿날과 겹쳐서 아쉽게도 그 마음을 접어야 했다. 그러다가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가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으로 달려갔다.

일본은 섬기는 신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다. 그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이번 러브소나타 이와테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를 위해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준비하는 내내 무릎 꿇고 기도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시작된 지난 10월 21일(수)에는 비가 쏟아졌다. 본 집회가 열리는 22일(목)에도 비가 내리면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할까 봐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맑은 날씨를 선물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넘치는 감사 속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다.

나는 러브소나타 이와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환영 인사를 건넸다. 러브소나타 이와테에 참가하는 사람 중에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는 조금의 의심조차 없다. 일본의 다음세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음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 한국 교회 성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럴수록 교회 한 곳이라도 더,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품어 온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는 끝이 났다. 앞으로도 러브소나타가 매년 이어지기를 바란다. 故 하용조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기독교인이 1%에 불과한 일본 땅에 기독교인 비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러브소나타의 '러브', 즉 사랑은 기독교의 중심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사랑이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땅에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러브소나타가 일본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열리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빈손으로 걸어도 하나님은 채우신다



장건우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해병대 복무 시절, 미국 횡단 계획을 세웠다. 길 위에서 노숙하고 히치하이킹을 하며 서부 LA부터 동부 뉴욕까지 4,813km를 50일 동안 단돈 30만 원으로 횡단하는 도전이었다. 모두가 뜯어말렸지만, 이 여정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가치가 있었다. 바로 "빈손으로 걸어도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것이다.

전역하고 복학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70L 배낭을 메고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야 하기에 11kg을 감량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굶주림에 익숙해지는 연습도 했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길 위에 섰다.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잘 곳이 없어서 마트와 공항을 찾아 헤맸다. 밤에는 노숙인에게 쫓기기도 했다. 사흘을 1달러로 버티기도 했고, 끝없는 사막에서 남은 돈의 절반으로 기차표를 사며 낙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더 줄 수 없음에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믿기로 했다.

나는 66번 국도를 따라 걸었다. 때로는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큰 트레일러를 얻어 타며 끝없는 중부 사막을 달렸다. 그랜드캐니언 앞에 섰을 땐, 창조주의 위대함에 겸허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것을 재며 살아왔지만,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다.

특히 댈러스에서의 일이 기억에 남았다. 한 빵집에서 만난 분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들으시고는 진열대의 모든 빵을 사 주시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빈손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따랐고, 다시 빈손으로 출발한 나의 여정은 또다시 놀랍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뉴욕에 다다랐을 때, 내 주머니에는 770달러(약 102만 원)가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타코를 사서 맨해튼의 노숙인들과 나누었다. 이 여정은 그저 미국을 횡단한 모험이 아니라, 빈손으로 걸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증명한 여정이었다.

나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 50일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한 편의 대서사시였다. 417km를 홀로 걸었고, 2,359km를 히치하이킹했으며, 2,037km는 대륙 횡단열차에 몸을 실었다. 50일 간의 횡단 끝에 나는 하나님이 낯선 사람들의 친절과 만남을 통해 빈손을 채우셨음을 발견했다.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청춘을 만났다. 청춘의 가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있음을 배웠다. 도전하는 용기는 언제나 박수받아 마땅하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순례자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만난다.

'나는 지금 여행자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자로 걷고 있는가?'

여행자와 순례자는 둘 다 길을 걷지만, 목적과 시선이 다르다. 여행자는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찾아 길을 떠난다. 그러나 순례자는 길을 걸으며 삶의 의미와 하나님을 찾아간다. 여행자는 길 위에서 세상을 만나지만, 순례자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으며, 거친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다. 빈손으로 걸어도 채우셨던 4,813km의 여정처럼 말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홀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 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혜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수원 031.895.6500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룸홀(3층) / 꿈땅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중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땅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땅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 4부 14:0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10:00, 12:00 샤이닝홀 / 유아부 10:00, 12:00 누리홀 / 유치부 10:00, 12:00 꿈아이홀 / 유년부 10:00, 12:00 드림홀 / 초등부 10:00, 12:00 기쁨홀 / 꿈땅3부 14:00 드림홀 / 소년부 10:00, 12:00 믿음홀 / 파워웨이브 8:00, 10:00, 12:0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2:0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땅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땅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한솔 길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완
김한국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렵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원
박성천 박성훈 박수환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주용 손정훈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길중 윤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이환희
임동현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제홍 장지훈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전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장건우
최강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홍미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미애 박상준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영철 손슬기 싱루애놉 양현수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윤랠세이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이현경 이호산나
임성진 임진숙 정동윤 정연영
정진모 제인량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혜은 고우리
구길모 국지환 권영찬 권순건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기태
김동환 김명주 김세나 김은혜
김윤미 김재현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화목 김효진 나가노
마사토 나영필 남 혜 네무혜 페
드미트리 뛰심 스보다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성훈 박시온 박영애
박의력 박정민 박종필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삼손 폴린 서나영 서은규 서은지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송찬욱
송 현 송현우 신대환 신지수
신호철 애리 자라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영광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국화 우수진
우승희 유엘리사 유효한 유지은
유 찬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상영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임효영 장성엽 장영주
전가윤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승혁 정영현 정유나 정주은
정찬중 조민희 조슬기 조현찬
조예원 지석구 지예찬 주승환
주우형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형주 최혜정 추선형
하예림 하헌영 한숙희 허영은
홍세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세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역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창욱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나상권 나영욱 남상길 노기홍
노재한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봉
서찬교 성주명 성창섭 손정래
손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종환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기 이상덕 이상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헌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임현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순풍 정영규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성현A
조성현B 조진호 조정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최창규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흥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석휴 강은철 강종도 강찬옥
강창재 강태욱 고길법 고영대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경용 구자엽 국중대
권순형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섭 김동수 김동우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만순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귀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생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의래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지학
김지현 김진현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태형 김해기 김현주
김형석 김형준 김화선 김효구
나경원 나 영
남명현 남윤영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전기 노지준
노하수 라상원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기일
박구병 박균명 박덕현 박동현
박명균 박명신
박복응 박성규 박승병 박영식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태식
박태준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효신 박흥선 방찬종 배승호
배창준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성광제 손기철
손기태 손태용 송동섭 송영봉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헌승 신현식 신현일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세현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엽 우시정
원종호 유봉국 유우선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걸 이삼형 이상율
이상준A 이상준B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욱 이재춘
이정구 이종우A 이종우B 이종철
이주호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홍선
임창우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관수 장광열 장문석
장성수 장승훈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진국 정광열 정기삼
정병호 정민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용주 정운섭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환 정제범
정찬희 정탁영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주성대 주영창 주재량 지상목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병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이정 최종필 최주관 최준영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갑천
하상진 하주헌 하태승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상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허 경
허대행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승우 홍호식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전영한 정광택 정남식
정몽준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한결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윤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유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조지은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홍우석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수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창선 김형중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승훈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주영 이청원 이토 히로시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다니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시하라 노리코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민정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청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권우중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남 영 노흥규 백남인 백호현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헌제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상헌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손정래 장민용
전수열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권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온누리선교재단 양재 온누리 커피숍 정규직원 모집
모집: 커피숍 바리스타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인사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교회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10/17(토) 서대문 김성환 집사 부친상, 오선민 권사 시부상 고 김춘식
10/23(금) 고양은평 장형아 성도 부친상 고 장도진
10/23(금) 관악금천 윤선희 권사 시부상 고 신구식
10/23(금) 양재A 윤미라 권사 모친상 고 최영애
10/24(토) 서초A 고경애 성도 시부상 고 문상식
10/24(토) 과천의왕 이미화 성도 모친상 고 김정자
10/24(토) 서대문 김시만 성도 모친상, 장경애 집사 시모상 고 서화자
10/25(일) 용산 김용선 집사 부친상, 박세열 집사 빙부상 고 김경수
10/25(일) 고양은평 신범수 집사 모친상, 진명선 집사 시모상 고 고정희
10/25(일) 도곡 김성수 집사 부친상, 여동옥 권사 시부상 고 김진환
10/25(일) 하모니 김영옥 성도 모친상 고 김양재
10/25(일) 송파A 최승규 성도 모친상, 배경은 성도 시모상 고 김영희
10/26(월) 송파B 김미양 성도 시부상 고 정한모
10/26(월) 북누리 고 김지선 집사
10/27(화) 양천 김정원 집사 모친상, 염명희 권사 시모상 고 김영향
10/28(수) 강남A 권순효 성도 시부상 고 마선권
10/29(목) 브릿지33+ 김상진 성도 모친상 고 김정임
10/29(목) 성북 홍선욱 성도 부친상, 신혜란 성도 시부상 고 홍성준
10/29(목) 강서 남남옥 권사 모친상, 김종명 집사 빙모상 고 신순남
10/30(금) 양재B 박재서 성도 모친상 고 신순호

MERRY
CHRISTMAS

2026 차세대 주일학교
성탄 독후감 대회

제 출 기 한 : 11월 29일까지

우편접수 : 11월 28일 도착분 한정

시 상 식 : 12월 20일(청소년센터 3층 도서관)

목 적 기독교 도서 읽고 독후감쓰기 훈련을 통해 신앙 성장 도모

대 상 꿈땅 주일학교 어린이(초6 이하)

시 상 우수작 온누리신문 게재 그리고 소정의 상품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연습(로렌스 형제 원작)",

"오스왈드 챔버스가 들려주는 어린이 산상수훈" 중 택 1

책 읽고 독후감 작성 제출 (독후감은 200자 원고지 자필 작성)

- 유년부 3장 이상 - 초등부 5장 이상 - 소년부 7장 이상 제출

도서관 대출 및 자가 소유 도서 외 신규 도서구입 희망시 도서쿠폰 지원

ONNURI CHURCH LIBRARY

온누리교회 도서관

02-3215-3110